

원자재 확보 '전쟁' -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듯

- 중소기업 타격 가중, 정부 차원의 수급 대책 절실했다 -

지난해 4/4분기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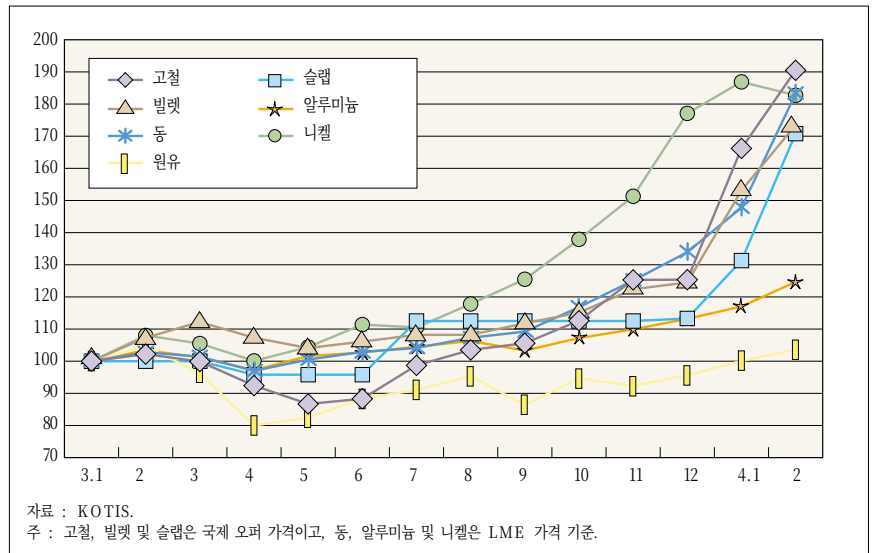
주요 원자재 가격 70 ~ 80 % 상승

고철, 슬랩, 빌렛 등 철강 원자재와 동, 니켈,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원자재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3~4개월 사이 고철, 동, 니켈은 70 ~ 80 %, 빌렛과 슬랩은 60 % 이상 가격이 상승하였다. 여기에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가격 하락이 예상되던 원유마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현재 지난해 초 이라크 전쟁 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2월 들어서도 하루가 다르게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품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동의 경우 2월 25일 현재 톤당 3,000 달러를 돌파하여 역대 최고치였던 1995년의 3,005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당초의 예상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은 물론 이들 소재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산업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들 소재를 자재로 사용하는 건축 토목은 물론 중간재로 사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가전, 조립 금속 등의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된다.

국제 원자재 오버 가격 지수 추이(2003. 1 = 100)



이와 같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게 된 배경과 원인으로는 중국의 수요 급증과 선진국의 경기 회복, 국제 해상 운임의 급등, 그리고 미국의 달러 약세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매년 8% 이상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제 개발 초기의 도로, 교량, 철도, 전화,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과 산업화에 필요한 철강 및 비철금속 소비가 매년 20% 이상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소비한 철강 및 비철금속은 세계 전체 소비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세계 철강 및 비철금속 소비 증가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늘

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재의 소비가 급증하자 중국은 지난해부터 자체 공급만으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수입에 나서게 되었다.

특히 철근, 형강 제조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고철과 전선, 동관 등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전기동과 동 스크랩은 그 동안 수요도 급증한 데다 중국이 애초부터 자원이 부족하여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품목이어서 전반적으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가격 상승을 선도하게 되었고, 상승 폭도 다른 품목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반면 그 동안 수급 균형을 이루어 오던 알루미늄마저 수요 급증과 자체 공급 부족, 보크사이트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선진국 경기 회복 가세

중국의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던 시점에,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원자재 수요가 급증한 것이 가격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2003년 3/4분기에 전분기 대비 8.2%, 4/4분기에는 4.0%를 나타내며 호조를 보였다.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지수도 계속 확장세를 나타내 198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일본도 2002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03년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섰으며, 유로 경제도 3/4분기에 0.8% 성장하며 2분기만에 플러스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여기에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소위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경기 회복과 더불어 원자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 원자재 교역량이 급증하자 국제 해상 운임이 급상승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해운산업연구원에 의하면 국제해상운임지수(BDI : 1985년 1월 = 100)는 지난해 1월 1,530에서 금년 1월 5,551로 1년 사이에 무려 3.6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화의 약세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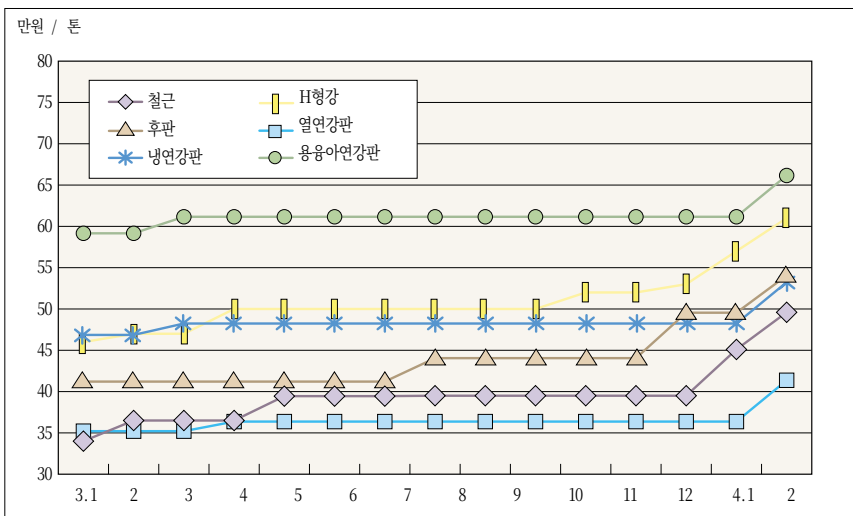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달러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달러화의 약세가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의 원자재 선호 경향이 원자재 수요를 촉발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원 수출국들이 달러 약세로 인한 구매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의 가격 인상에 나서고

최근의 원자재 파동은 중국의 수요 급증, 선진국의 경기 회복, 국제 해상 운임 급등, 달러화 약세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원자재 수급 불안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2년간 미 달러화에 대해 알루미늄 세계 3위, 아연 세계 2위의 자원국인 캐나다의 달러는 16.8%, 세계 최대 동 생산국인 칠레의 페소화는 11.6%, 세계 2위의 알루미늄 생산국인 러시아의 루블화는 10.7%가 각각 절상된 바 있다.

여기에도 국제 유가마저 32 달러를 넘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건설업과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원자재 수급난 등 2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 유가 역시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고성장으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OPEC의 선제적 감산 조치, 이라크의 석유 수출 정상화 지연, 베네수엘라·나이지리아의 정정 불안 등이 겹치면서 공급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서 기대를 웃도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 철강재 가격 인상 추이



철강 및 비철금속은 국제 시세와 연동

국제 원자재의 가격 인상으로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의 가격 역시 급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철강 및 비철금속 가격이 원자재 가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철강 및 비철금속 자체의 국제 가격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철강재 중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 강판 등의 가격은 국제 철강재 가격에 영향을 받고, 철근, 형강 등은 국제 고철 가격에, 그리고 후판은 모재가 되는 슬랩의 국제 시세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고 있다. 한편 철강과 달리 우리나라의 비철금속 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LME) 시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LME 가격 변화가 우리나라 비철금속 가격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다.

국내 철강재 가격은 지난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4/4분기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원자재인 슬랩의 가격 앙등으로 후판은 지난해 6월 이후 31.2%나 상승하였고, 국제 고철 가격이 급증하면서 고철을 원료로 하는 철근, 형강 가격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25.7%, 22.0% 각각 인상되었다.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 강판 등 판재류 역시 지난 연말부터 국제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포스코는 지난 2월 9일 평균 12% 가량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바 있다.

철강 및 비철금속의 가격 상승이 이들 소재로 사용하는 관련 수요 산업에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철강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관련 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분석표를 통해 철강재의 가격이 10% 인상할 경우 관련 수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립금속은 2.8%, 자동차 부품 1.5%, 일반기계

1.4%, 선박 0.9%, 그리고 건축·토목 0.8%, 자동차 0.7%의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의 가격 인상은 전 산업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지만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은 중간재인 철강 및 비철금속의 수급 불안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 원자재의 매점매석, 과다한 비축 등을 유발시켜 원자재 유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원자재 수급 불안 단기 해소는 어려울 듯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언제,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지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의 원인을 짚어보으로써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최근의 원자재 수급 불안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복합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 원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달리는 데 있다. 이에 대한 해소책은 수요가 감소하든지, 공급이 늘어나든지, 대체재가 개발되든지 3가지 중에 하나이다.

우선 수요 둔화의 가능성부터 살펴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선진국의 경기가 이제 겨우 기지개를 켜고 있는 시점에서 수요 감소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다른 대안인 원자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와 더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또한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 여지가 크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대체재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인데 원자재에 대한 대체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가능성이 희박하다. 원자재를 바꿀 경우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과 기술이 모두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세는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 순환적

인 요인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현재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원자재의 가격 상승세는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원자재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높은 가격 및 수급 불안 현상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에 주력해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관련 수요 산업은 원가 부담 가중으로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되면서 기업간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고, 수출 및 내수 제품의 평균 단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평균 단가는 2.2%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원자재를 공급하는 소재 업체나 이를 사용하는 수요 업체 모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장기 계약, 신용 구매 등으로 원자재 수급이 비교적 원활한 대기업보다는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겪게 될 어려움이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재 업체와 수요 업체가 상호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원자재의 안정 수급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아울러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 및 대기업들의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으로서의 수익성 확보보다는 원자재의 안정 확보가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